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형태 비교

조선희*
gounder@lycos.co.kr

박옥련**
ylpark@ks.ac.kr

<目次>

1. 서론	3.1 의복
2. 이론적 배경	3.2 화장
2.1 시대적 상황	3.3 머리형태
2.2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3.4 머리장신구
3.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형태 비교	4. 결과 및 고찰
	5. 결론

主題語: 근세(Modern ages), 풍속화(Genre painting), 기녀(Ginyeo), 의복(Clothes), 화장(Make-up), 머리형태(Hair style), 장신구(Accessory)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랜 시간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끼쳐왔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일본은 한국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했을 것이다.

조선후기와 에도시대는 근세사회로서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다. 상업자본주의의 발달은 계급간의 신분이동 현상을 야기했고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당대 복식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 전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유사한 시기 상업자본주의의 변화를 맞이하던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풍속화와 우키요에 라는 회화가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그림에는 대상이 되는 주체의 형태 및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풍속화는 민족성이나 사회상을 잘 표현하는 회화장르로서 서민들의 생활을 표현한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교신저자

것 이상으로 당 시대의 사상과 종교, 정치 등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서민들의 생활상 가운데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았다. 이중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는 기방과 기녀를 둘러싼 풍경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기녀의 자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동안 기녀복식을 접하기 힘들었던 일반여성들이 풍속화를 통해 기녀의 복식을 접함으로써 이들의 자유분방하고 관능적인 복식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기녀복식은 일반여성 복식의 전반에 유행하게 되었다.

에도시대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繪)는 유곽의 모습, 기녀, 가부키, 스모 등의 현실세계는 물론 피기물에 춘화, 풍자화 등 서민들의 꿈과 동경, 환상을 망라하는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소재의 다양성 이외에도 강렬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 현대적인 화면 구성 등 대중의 미적 관심을 폭 넓게 반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키요에는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달과 비슷한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고 작품의 특징이나 성격 또한 조선후기 풍속화와 유사하다. 우키요에도 당시 대중화가들의 손에 의해 유곽문화와 기녀의 모습을 주로 담아냈고 서민들이 그 모습을 쉽게 접하게 되었다. 여기에 표현된 미인화는 주로 기녀, 가부키 배우들이었다. 그림 속에서 그들이 착용한 의복의 색이나 문양, 스타일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접한 많은 여성들이 유사하게 제작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조선 후기 기녀들은 자신들이 주로 접하는 상류계층 남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관능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관능적인 여성복식이 나타났다.

에도시대 기녀들은 예능계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신분상으로는 하류층에 속하지만 상류 사회에 예술을 전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존재였으며 부유한 초년과 상류계층의 남성들에게 매력을 발산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의 기녀들은 당시대의 복식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복식을 당시 여성들에게 전파·유행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본 연구는 조선후기와 에도시대의 풍속화를 통해서 당시대 유행을 선도했던 기녀복식 형태를 비교하므로 양국의 사회배경과 복식형태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선행연구로는 조선후기 풍속화와 에도시대의 우키요에에 나타난 여인상의 비교에 관한 연구들²⁾로 김보아(2010), 변혜경(2006), 이유진(2004), 임민선(2007), 정병모(1999)가 있

1) 김혜영(1997) 「기녀복식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여성 복식의 연구」 『배재대학교논문집』 2권, p.432

2) 김보아(2010) 「혜원신윤복과 도리이 기요나가의 여인상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 한국과 일본의 복식에 관한 연구들³⁾은 고경숙(2004), 김민경(2009), 노수정(2007), 윤혜성(2009), 최선은(2002)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풍속화와 우키요에에서 주로 다루지는 기녀복식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형태로 의복, 머리형태, 화장, 장신구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을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통적인 복식문화를 찾아본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방법으로 조선시대는 풍속화가 크게 유행하였던 임진왜란 이후부터 1900년 이전까지의 풍속화 중 기방풍속과 기녀의 모습을 다룬 신윤복의 그림, 그 외에 풍속화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기녀복식을 분석하였으며, 에도시대는 기녀와 가부키 배우의 모습을 다룬 미인화를 중심으로 에도시대의 기녀복식을 참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대적 상황

2.1.1 조선시대

조선후기는 16세기 말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戰亂) 이후로 영·정조가 다스리는 시기이다.⁴⁾

변혜경(2006) 「조선후기 풍속화와 강호시대 부세회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2004) 「신윤복과 우타마로와의 여인 인물 표현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민선(2007) 「조선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 여인상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병모(1999) 「조선후기 풍속화와 에도시대 우키요에의 비교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8권
 3) 고경숙(2004) 「조선과 에도시대 두발양식 및 화장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의 화장문화와 수발문화의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권
 노수정(2007) 「조선시대 후기와 에도시대의 직물에 표현된 식물무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혜성(2009) 「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 : 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선은(2002)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이기백(1967) 『한국사신론』 일조각, p.265

양란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황폐해진 조선 사회가 국가적인 부흥을 이룬 시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때였다. 이 시기에 실학은 물론 문학, 회화, 음악 등 학술의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후기는 농업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산업발달로 국가 전반의 경제력이 상승한 시기다.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상승한 결과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부농이 등장함과 반대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계급의 붕괴를 초래했다.

신분제의 붕괴는 일부 몰락 양반과 대다수의 농민층이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하향방향과 부농이나 지주들이 신분상승을 성취하는 상향방향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의 조짐이 기녀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 반가여성과 같은 사치를 누릴 수 있었으나 천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기녀들은 국가에 재물을 내고 합법적으로 면천(免賤)이 되기도 하고, 지방 관리와 결탁하여 대비정속(代婢定屬)하였다(5) 또한, 양반의 기녀작첩에 의한 관기(官妓)신분 탈피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런 현상은 늘어난 양반계층의 풍류의식과 기녀의 신분상승욕구가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빈궁한 처지의 양반이나 노동자, 유민들이 딸이나 손녀를 기적(妓籍)에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적에 오르는 자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반가여성 중에서도 기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6) 이렇듯 조선후기의 사치현상과 유흥문화의 발전은 기녀계층의 확산을 만들었고, 기녀들은 남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앞 다투어 더욱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신분제의 붕괴와 사치풍조, 유흥문화 확산 등의 사회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간구하기 위해 현실 개혁적 실학사상이 형성되었다(7)

이러한 실학적 의식 변화로 유교적인 권위주의의 비판과 억눌려 있던 인간성 회복운동은 풍속이라는 현실주의 예술을 탄생시켰다(8) 그것이 조선후기의 풍속화인 것이다.

유물만으로는 당시 복식의 착장형태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풍속화에 나타난 여성복식은 그 특징과 복식미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후기 풍속화의 유행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화가로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다. 신윤복은 그 중 지방풍속을 중심으로 한 인물 위주의 풍속화를 주로 그렸다. 그의 풍속화는 섬세하

5) 조광국(2001) 「기녀담, 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40-241

6) 장민정(2004) 「조선시대 기녀복식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7) 이강선(2005) 「조선시대 후기 기생복식이 일반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풍속화를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8) 조규화(1898) 『복식미학』세운문화사, p.28

고 유연한 필묵법과 청·홍색의 대비효과로 등장인물들의 풍부한 표정을 보여준다.

반면, 김홍도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 가운데 재미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았다. 그의 풍속화는 강하고 생명력 있는 필선(筆線)과 표정을 살린 인물묘사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풍속화는 한국적인 소재와 주제를 독창적인 화법으로 다룬 서민예술이다.

2.1.2 에도시대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세이이 다이쇼군(征夷大將軍)에 임명되어 에도(江戸)에 막부(幕府)를 개설한 게이쵸(慶長)8년(1603)부터 15대 쇼군(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게이오(慶應)4년(1868)까지의 봉건시대를 말한다.

에도시대는 신분제사회로, 사농공상(士農工商) 중 소수의 무사계급이 농민과 공상(工商)을 지배하였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초닌(町人)의 상업 활동에 대한 인식과 해외무역의 이득, 외국 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후기에는 막부체제의 모순이 심각화하여 개국을 둘러싸고 분열하여 정국과 국론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산업, 교통, 도시의 발달로 인해 상품경제가 성행하게 된 결과 경제적인 실력을 가진 초닌이 대두함으로써 새로운 상인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⁹⁾

경제적 번영으로 태평성대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예(遊藝)나 연극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향락적이며 찰나적인 유리 문화를 조성시켰다. 유리(遊里)나 극장이 번성한 이유는 봉건사회 속에서 다소나마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그리하여 에도사회에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와는 관계없는 ‘서민문화’가 발생하였다.

극장이나 예능계의 인물지(人物誌), 요시하라(吉原)¹¹⁾, 여성평판기(女性評判記) 등의 출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리연극(遊里演劇)의 세계를 토대로 우키요에(浮世繪)는 크게 발달하게 된다.

특히, 우키요에의 주제가 되었던 미인화의 게이샤(藝者)는 예능계의 대표적 인물로서 신분상으로는 하류층에 속하나 상류사회에 예술을 전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존재였다. 후대로 가면서 예능을 전달하는 게이샤와 예능과 함께 성(性)을 피는 유녀(遊女)로 나뉘어졌다.¹²⁾ 유녀와 관련된 호칭으로 오이란(花魁)은 요시하라의 기녀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9) 北村哲郎 저·이자연 역(1999) 『일본복식사』 경춘사, p.118
10) 이유진(2004), 앞의 논문, p.22
11) 吉原(요시하라) : 江戸에 있던 유곽(遊廓), 출처: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사전

기녀를 뜻하며, 인정받는 존재였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샤와 유녀를 통칭 기녀라고 표현하였다.

우키요에 미인화에는 의복의 색·문양·스타일·착장방법 등 당시 복식문화의 양상이 잘 나타나 에도시대의 패션 잡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¹³⁾ 이 같은 보편성이야말로 근대 이전에 형성된 일본 서민 문화의 높은 질적 수준을 보증하는 것이다.

2.2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2.2.1 조선시대

조선후기 여성복식의 유행을 선도한 기녀들은 자신들의 당당함과 예술적 감각을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의식 변화를 가장 먼저 복식에 표현하였을 것이다.

풍속화에 이런 기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 일반여성들은 보기 어려웠던 기녀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자유가 거부된 규방의 일반여성들은 풍속화에 나타난 기방풍속과 곱고 화사하게 표현된 기녀들의 모습을 선망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¹⁴⁾ 이로 인해 기녀들의 풍속이 유행이 되어 일반여성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림 1>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출처: 조선풍속사 3, p.86, p.208)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은 <그림 1>에서 보면 크게 부풀려진 검은 가채와 하얀 피부, 가늘고 반달형의 긴 눈썹, 앵두 같은 작은 입술로 표현된 분대화장, 몸에 꼭 맞도록 짧고 좁아진 단소화된 저고리와 이외는 대조적으로 풍성하게 부풀려진 치마로 둔부를 풍성하

12) 김월계(2009) 「영화에 나타난 기녀와 게이샤 복식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12권2호, p.65

13) 양지나(2010) 「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14) 조효순(199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p.262

게 보이도록 착장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2.2 에도시대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우키요에는 육필화(肉筆畵)와 판화(版畵)의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육필화란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에 비해 판화 우키요에는 다양한 색채화 효과로 제작된 그림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¹⁵⁾

이렇듯 우키요에는 목판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우키요에에 표현된 미인화는 주로 기녀, 통속소설의 여주인공, 가부키의 여배우로 그들이 착용한 고소데의 색이나 문양, 스타일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우키요에 그림에 표현된 고소데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제작된 고소데를 착용하여 유행하였다.¹⁶⁾



<그림 2> 우키요에에 나타난 미인도
(출처: 肉筆浮世と江のファッション)

우키요에에 나타난 기녀복식은 <그림 2>에서 보면 깔끔하게 올린 머리 형태에 많은 머리 장신구를 착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고 겉옷과 속옷의 색채 대비를 주어 중첩하였으며, 의복에 화려한 문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문하여 화려함을 더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하얀 피부에 두꺼운 눈썹과 가늘게 올라간 눈, 붉은 양 볼과 작은 입술의 화장을 하였다.

15) 김미라(2000) 「조선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4

16) 양지나(2010), 앞의 논문, p.58

3.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형태 비교

3.1 의복

3.1.1 조선시대

조선시대 기녀의 의복은 저고리, 치마로 이루어져 있고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한 하체를 강조하여 항아리 같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렇듯 꼭 맞는 저고리와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를 통해 여체의 굴곡적인 관능미를 연출했다. 또한, ‘거들치마’는 속옷을 노출시키는 파격적인 착장법(着裝法)으로 파격미와 관능미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녀복식에 매료된 남성들은 유흥문화를 발달시키고, 기녀복식을 처첩에게 권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그림 3> 조선시대 기녀 저고리의 변화

(출처: 한국의 풍속화, p.268, 풍속화, p.161, 한국의 풍속화, p.406, p.408)

풍속화에 나타나는 기녀의 저고리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기녀가 반가부녀자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조선중기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저고리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져 겨드랑이가 보일 정도이다. 소매통은 직배래의 착수형태로 변화였다. 깃은 당코깃이 주를 이루었으며 깃 넓이는 매우 좁아진 형태로 깃이 좁아지면서 쇄과 동정이 모두 좁아졌다. 이로써 저고리 전체가 단순화되었다. 이는 가녀린 여성성과 풍성한 치마와 대비를 이루어 여체의 굴곡적 형태를 의복으로 드러내 남성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또한, 안고름은 주로 홍색을 사용해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가슴부근으로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단순화되어 관능적인 형태의 저고리는 당대의 실학자가 개탄할 정도로 기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¹⁷⁾ 반가부녀자들에게 번져 가고, 후기로 갈수록 상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행했다.

17) 한국역사연구회 지음(2006)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권』 청년사, pp.209-210

넓고 길어진 치마는 저고리의 단소화경향이 심해질수록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 미인도 <그림 5> 전모를 쓴여인 <그림 6> 미인도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한국의 풍속화, p.337, p.406)

치마의 착장방법에는 발이 보이지 않게 그대로 늘어뜨려 입는 방법 <그림 4>, 치맛자락을 앞으로 저고리 도련 위까지 치켜 올려 입고 띠를 매는 ‘거들치마’로 입는 방법 <그림 5>, 치맛자락을 저고리 도련 위까지 여며 입는 방법 <그림 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착장자의 착장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였다.

기녀는 하체의 풍만한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 풍성한 치마 밑으로 많은 속옷을 중첩했다. 이는 오늘날의 패티코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짧고 좁은 저고리에 비해 풍성한 치마를 입음으로써 하체가 풍만해보이도록 하여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실루엣을 이루어 여성적인 매력을 풍기도록 하였다. 또한 은은한 색상의 의복에 원색의 술과 보석으로 장식된 노리개와 같은 장신구를 패용하여 가슴과 허리부근으로 시선을 모았다. 당시 반가여성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후덕함을 우선으로 여겨 장신구로 몸치장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반해, 기녀는 남성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고자 장신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패용할 수 있었다.



<그림 7> 조선시대 기녀가 착용한 노리개
 (출처: 한국의 풍속화, p.268, p.408, 풍속화, p.161)

<그림 7>은 은은한 색상의 의복에 원색의 노리개를 착용하여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세 번째 기녀는 왕비만이 패용할 수 있었던 삼천주(三千珠)노리개¹⁸⁾를 착용한 모습으로 기녀는 장신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패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저고리의 단소화현상과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로 가녀린 여성미와 굴곡적인 관능미를 극대화하려 했던 기녀의복 형태는 사치풍조와 유흥문화 발전으로 더욱 극심해졌다.

3.1.2 에도시대

에도시대의 고소데(小袖)는 이전 시대와 구조적인 변함은 없고 길이, 품, 소매, 문양(模樣), 염직(染織)에 변화를 주어 의장(意匠)이 변천되어 왔다. 길이가 긴 한 장으로 된 형식으로 17C 중반까지 점차 품이 좁아지고 소매의 폭이 약간 넓어지며 길이가 길어지는 등의 변화를 거쳐서 17C 말 무렵의 고소데는 더욱 길고 품이 작은 형태로 완성되었다.¹⁹⁾ 이로 인해 이전의 풍성하던 실루엣에서 가녀린 여성미를 극대화 시키는 가느다란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났다.

기녀의 고소데는 일반여성들과 같은 형태이고, 착장방법에 있어 뒷깃을 뒤로 많이 넘겨 목선의 뒷태가 드러나게 착용하여 고소데 자락이 끌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머리장신구를 이용하여 크게 부풀린 머리채와 대조적으로 가늘고 긴 하얀 목선을 드러냄으로써 관능적인 기녀의 매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기녀는 계급별로 착용하는 의복이 달랐는데, 견습 게이샤인 마이코는 소매가 길고 옷자락이 넓으며, 뒷깃이 많이 파인 고소데를 착용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문양과 색상이 화려했다. 정식 게이샤가 되었을 때 흰 깃을 달고 넓고 긴 오비를 착용하며 젊을수록 문양과 색상을 화려하게 사용했다고 한다.²⁰⁾

에도시대 고소데의 종류는 게이초고소데(慶長小袖), 간분고소데(寛文小袖), 겐로쿠고소데(元禄小袖)등이 있다.

18) 삼천주 노리개는 불교의 세계인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상징한다. 이는 우주와 그에 따른 삼라만상의 질서와 섭리를 뜻한다. (국립 중앙 박물관)

19) 윤혜성(2009) 「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20) 김월계(2009), 앞의 논문, pp.65-66



<그림 8> 湯女図 <그림 9> 寛文美人 <그림 10> 三浦屋小紫 <그림 11> 源氏朝顔之卷 <그림 12> 雪中美人図
(출처: 染織シリーズ4-日本服飾小辭典, p.47, 小袖, p.44, p.74, 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p.34, 우키요에의 美, p.282)

게이초고소데<그림 8>는 바탕이 거의 보이지 않고 세밀하게 문양을 전면배치하는 문양이 많았다.²¹⁾ 간분고소데<그림 9>는 전면을 약동감이 넘치는 대담한 문양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고소데이다. 큰 무늬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로 꼽힌다.²²⁾ 형태는 이전 시기보다 품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겐로쿠고소데<그림 10>는 간분고소데와 비교해 여백이 줄면서 문양 부분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²³⁾ 여백의 미보다는 많은 문양으로 화려함을 추구했다는 것이 간분고소데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1, 12>의 기녀는 흰 깃이 달린 것으로 보아 정식 게이샤이며, 차분한 색상의 겂옷과 화려한 색상의 속옷을 중첩한 색채대비로 세련미를 주었다.

기녀복식의 실루엣 변화를 본 결과 초기 품이 넓은 게이초고소데부터 가녀린 여성미를 드러내는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는 겐로쿠고소데까지 점차적으로 품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그림13> 龜戸天神 <그림14> 二美人図 <그림15> 摘み草図 <그림16> 化粧美人
(출처: 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p.32, きもの美, p.9, 日本の染織 4, p.86, 우키요에의 美, p.275)

21) 윤혜성(2009), 앞의 논문, p.60

22) Iwao Nagasaki(2006) 『Kosode The Origin of Modern Kimono Design』 Pie books, pp.42-43

23) 丸山 伸彦(2007) 『江戸のきものと衣生活』, p.23

기녀의 고소데는 색채뿐만 아니라 문양도 다양했는데, 문양은 밑단부터 앞단과 깃에 걸쳐 리스듬히 문양을 배치한 에도초(江戸襖)문양<그림13>, 밑단 주위에만 모양을 표현하는 거문양(裾模様)<그림14>이 있다. 고소데의 밑단(裾)과 앞단(襖)의 안쪽에 문양을 배치하는 것을 리문양(裏模様)<그림15, 16>이라한다²⁴⁾. 이와 같이 고소데의 일부분에 문양이 배치되어 섬세한 아름다움을 나타냈으며, 고소데 안쪽에 화려한 색상의 안감과 ‘리문양’을 배치하여 차분한 색상의 겉옷과 대비되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더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비(帶)는 의복을 여미기 위한 실용품이었는데, 장식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폭이 넓고 길어졌다. 또한, 값비싼 원단과 화려한 문양을 배치하여 사용하였다. 에도초기 허리선 부근에 착용하던 것이 가슴선 아래로 올라갔는데, 이는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게 연출하여 가녀리고 긴 일자형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일조하였다.

길고 넓어진 오비는 매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에도중기의 미혼여성은 오비를 등 뒤에서 매고, 기혼여성은 앞에서 매었다. 특징적인 것으로 유녀는 게이사와 달리 항상 오비를 앞으로 매듭지었다고 한다.

고소데가 길어지고 오비가 넓어짐에 따라 옷자락이 끌리지 않게 하고 오비를 고정시키는데 쓰였던 시고키(扱)라는 끈에도 장식이 들어갔다.

이와 같이 고급 원단에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문양의 사용으로 사치풍조는 더욱 극심해져 복식금제정책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차분한 간색의 겉옷과 화려한색의 속옷을 중첩한 세련된 배색의 미가 요시하라의 기녀로부터 시작되어 유행되었다.

3.2 화장

3.2.1 조선시대

조선시대 기녀들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분대화장’을 했는데, 분대(粉黛)란 백분과 눈썹 먹이라는 뜻으로 기녀·궁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녀를 분대라고 별칭 할 만큼 한결같이 분대화장을 했다고 한다.

분대화장법은 머릿기름을 바르고 먹으로 눈썹을 가다듬어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은 복숭아처럼, 입술은 앵두빛처럼 연지를 칠하는 것이다. 얼굴에는 백분을 질게 발라 피부를 하얗게 하였다.²⁵⁾ 기녀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하기 위해 분세수(粉洗手)를 하기도 하였다.

24) 윤혜성(2009), 앞의 논문, p.67

25) 홍인자(2001) 「한국 화장 문화의 연대기적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분세수란 물에 갠 분을 얼굴 표면에 발랐다가 물로 씻어 내는 것인데, 이 분이란 것은 아연을 녹여서 만든 납 성분이었다. 이로 인해 기녀들의 얼굴은 납중독으로 얼굴이 푸르게 변하고 창백했다고 한다.²⁶⁾

기녀들이 얼굴을 하얗게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은 당시대 남성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기녀들은 남성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흑운(黑雲)같은 머리를 크게 부풀려 하얀 얼굴과 대비를 주어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한 듯하다. 또한, 납중독으로 푸르게 변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백분을 더욱 짙게 발라야 했을 것이다.



<그림 17> 조선시대 기녀의 분대화장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한국의 풍속화, p.408)

분대화장은 <그림 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흑운(黑雲)같은 검은 머리채와 대비되어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반달형태의 가는 눈썹, 앵두같이 붉고 작은 입술화장을 한 것이다. 세 번째 기녀는 쪽머리 형태의 머리를 하고 하얀 얼굴에 가늘고 다소 짧아진 듯 한 반달눈썹과 붉고 작은 입술화장을 하여, 19세기 말엽에도 기녀의 분대화장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2 에도시대

에도시대의 화장은 붉은 입술의 연지화장, 하얀 피부표현을 위한 백분의 사용, 검은 치흑(齒黑)과 눈썹그리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젊음을 표현하고, 노동하지 않는 상류계급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⁷⁾

하얀 피부 표현을 위해 사용된 연백제의 백분은 세밀하여 잘 밀착되었고 얼룩도 적게 남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흑색으로 변하며 특히 유행의 기운을 쫓으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었

26) 김승자(1998) 「조선시대의 기녀복식이 여자복식에 미친 영향-풍속화와 판소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27) 이행화·박옥련(2010)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제29집, p.300

다.²⁸⁾ 이로 인해 기녀들은 변해버린 얼굴빛을 가리기 위해 더욱 짙은 화장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림 18> 화장을 하는 기녀

출처: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p.301, p.303

에도시대에도 입술을 붉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가마쿠리(鎌倉) 중기가 되면 입술의 색이 붉은 것에서 점점 짙게 변하는데 특히 아랫입술을 윗입술보다 더 짙게 칠했다.²⁹⁾ 이러한 경향은 후기에 이르러 <그림 18>와 같이 검은색의 입술화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유녀의 화장법을 모방하여 두 가지의 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크게 유행했다. 이는 당시 값비싼 연지를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눈썹화장은 치혹과 함께 연령, 신분, 미·기혼 등을 제일 잘 나타내는 화장이었다.³⁰⁾ 눈썹의 형태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달하여 삼일월(三日月), 학미(鶴眉), 당미(唐眉) 등의 명칭이 있다.³¹⁾ 초기의 기녀는 가늘고 둥근형의 눈썹을 그렸으며 후기로 갈수록 두꺼운 눈썹으로 그렸다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화되어 간다.

치혹은 에도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화장이다. 치혹은 철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쌀뜨물 등을 부패시켜 라쿠(醎)를 만들고 그 가운데 못 등의 철판을 넣어서 녹인 치혹수인 철장수와 탄닌을 많이 함유한 오배지분을 섞어서 치이를 검게 염색하는 풍습이다.³²⁾ 에도에서는 요시하라의 유녀만이 치이를 검게 물들이고, 예자는 하지 않았다.³³⁾ 이는 검은 입술과 함께 검은색을 선호하는 일본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 박보영(2005) 「일본여성의 색조화장에 반영된 미의식 연구」『한국인체예술학회지』6권3호, p.133

29) 이행화·박옥련(2010), 앞의 논문, p.303

30) 김민경(2009) 「정조시대와 에도시대의 화장문화와 수발문화의 비교 연구」『한국생활과학학회지』18권 1호, p.194

31) 久下司(1996) 『化粧』法政大學出版局, p.67

32) 김민경(2009), 앞의 논문, p.194

33) 이행화·박옥련(2010), 앞의 논문, p.304

3.3 머리형태

3.3.1 조선시대

기녀의 머리형태는 ‘엷은머리’로 양식은 본인의 머리에 가체를 더하고 양분하여 좌우로 틀어 머리 위에 얹고 그 끝은 오른쪽에 끼우고 매개대기로서 묶어 늘어뜨리는 발양(髮樣)이다.³⁴⁾ 이는 삼국시대 궁양(宮樣)의 수식(首飾)이 민간에 흘러 들어와 발달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사치풍조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기녀는 신분적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가체를 사용해 머리채를 더욱 크게 부풀려 치장할 수 있었다. 크고 풍성한 검은 머리채는 기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가늘고 하얀 목선과 대비를 이루어 가녀린 여성미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녀의 머리 형태는 후기로 갈수록 더욱 고대화(高大化)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조선시대 기녀 머리형태의 변화

(출처: 한국의 풍속화, p.268, 조선풍속사 3, p.215, 한국의 풍속화, p.406, p.347, 풍속화, p.209)

조선시대 기녀머리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가체가 고대화되다가 가체금지령이 실효를 거둔 19세기 말에는 쪽머리형태가 되었다.

3.3.2 에도시대

에도시대의 머리형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효고형(兵庫型), 시마다형(島田型), 가쓰야마형(勝山型)이 있다

우선 효고형의 머리형태로 효고마게는 앞머리를 두고 머리를 크게 목덜미로 내어 붙여 느슨하면서도 자연스런 타보를 만든 뒤 밑동을 깔끔하게 잘라 정돈하고 머리의 한쪽으로

34) 배정룡(1982)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 『아세아여성연구』21(1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288

내린 비균형적인 아름다움이 보이는 양식이다.

시마다형은 앞머리와 타보를 낸 뒤 끈으로 상투 밑을 길게 감고 둘로 접은 상투를 만들어서 상투꼬리가 뒤로 돌출된 형태이며 분발형식의 앞머리, 빈, 타보, 상투를 모두 갖추고 있다. 두발형태로 마게의 높이, 장소, 의복, 화장에 따라 여러 형태의 시마다마게를 했을 정도로 마게의 볼륨을 통하여 입체적인 아름다움과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두발형태였다.³⁵⁾

가쓰야마형은 머리를 후두부에서 묶어 그 끝을 가늘고 큰 원을 만들 듯 위로 말아서 고정시킨 형태이다.

기녀는 하류계층이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상류계층 못지않은 화려한 두발형태와 장식을 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 모방심리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3가지 유형 중, 효고형과 가쓰야마형은 효고와 가쓰야마리는 기녀의 머리형태가 명칭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는 에도시대 기녀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20> 에도시대 기녀의 머리 형태

(출처: 우키요에의 美, 江戸300年の女性美化粧と髪型)

에도시대 기녀 머리형태는 <그림 20>에서와 같이 대부분 커다랗게 부풀려져 올림머리를 하고 있으며, 많은 머리 장신구를 이용하여 크게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소테 깃을 뒤로 깊게 젖혀 입어 노출된 하얀 목선의 뒤태와 대조를 이루어 가녀린 목선과 화려하게 장식된 머리채의 여성의 가녀린 관능미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내는 듯하다.

35) 김지연·황승민(2010) 「일본여성의 두발장식 및 장신구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11권 3호, p.103

3.4 머리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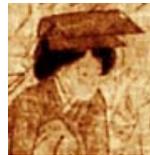
조선시대 기녀의 복식에는 의복을 장식하는 장신구인 노리개나 주머니, 지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에도시대 기녀의 복식에는 의복 자체를 다채로운 문양으로 장식함으로써 별다른 장신구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의복장신구는 의복과 함께 정리했으며, 본 장에서는 머리장신구로 제한을 두어 서술했다.

3.4.1 조선시대

조선의 여성들은 외출 시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는 쓰개를 착용하고 있지만 얼굴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사용했거나, 단순히 햇빛을 가리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 및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³⁶⁾ 즉, 자신의 얼굴을 잘 보이도록 하였다. 그 외에 기녀만 사용한 쓰개로 전모, 가리마 등이 있다.



<그림 21> 전모
(출처: 한국의 美 풍속화, p.42)



<그림 22>가리마
(조선시대 풍속화, p.166)

전모<그림 21>는 가चे 위에 바로 쓰기도 하고, 가리마<그림 22>를 쓰고 그 위에 착용하기도 했다. 이는 기녀만이 착용한 것으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어 착용하였다.

기녀는 얽은머리에 화려한 계(笄)나 잠(簪)과 같은 머리장신구를 패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문헌상에도 나타난다. 이는 천민신분이지만 값비싼 머리장신구를 사용함으로써 궁이나 사대부의 여성과 같은 부를 과시할 수 있었다. 또한, 반가여성에게 내적인 미덕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로 기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었으므로 마음껏 패용할 수 있었다.

36) 엄유신(2007) 「Fashion leader로서의 기생복식 : 조선후기 기생복식의 미적특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3

하지만 풍속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조화와 여백을 중시했던 당시 화풍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림23> 조선시대 기녀의 머리 장신구
(출처: 조선풍속사 3, p.78, 한국의 풍속화, p.406)

조선시대 기녀의 머리장신구를 <그림 23>에서 보면 왼쪽 기녀는 가채 위에 하얀색 둥근형태의 머리장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의 기녀 역시, 가채 위에 반달 형태의 황금색 머리장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풍속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녀가 없으면머리에 화려한 계(笄)나 잠(簪)과 같은 머리장신구를 패용했음을 알 수 있다.

3.4.2 에도시대

에도시대의 머리장신구는 복잡한 머리형태만큼 다양하다. 머리장신구는 에도시대 기녀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에도시대 풍속화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에도시대 기녀의 머리장신구는 <그림 24>과 같이 구시(櫛)와 간자시(簪), 고우가이(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4> 에도시대 기녀의 머리 장신구
(출처: 우키요에의 美, p.178, p.275, p.282, 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p.34)

구시는 머리를 빗기 위한 도구로서 실용적인 도구였으나 중기 이후부터 형태와 재질, 장식

법이 다양해지면서 기녀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2~3장의 구시과 함께 3~4개의 간자시를 함께 꽂는 것이 유행하였다.

간자시는 묶은 머리를 고정시키는 역할로 긴 막대기와 같은 형태이다. 이는 머리장식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것으로, 중기 이후 간자시의 머리 부분에 귀이개를 만들어 실용적인 기능과 장식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³⁷⁾ 많은 종류의 간자시는 머리형태에 따라 뒤 꽂기, 앞 꽂기로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모양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종류로는 귀이개간자시(耳搔き簪), 솔잎간자시(松葉の簪), 구슬간자시(玉簪), 은제품 틀에 투각을 하는 납작한간자시(平打簪), 꽃간자시(花簪), 일상품으로 만들어진 간자시 등이 있다.

고우가이는 초기의 상투를 만들기 위한 막대모양 장식품에서, 중기 이후 중앙의 동채 부분과 양쪽 끝과의 재질을 바꾸어 다양한 그림이나 조각 등으로 장식하였다.³⁸⁾ 또한 구시와 고우가이가 한 세트가 되어 머리에 장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값비싼 재료와 다양한 장식을 더한 머리장신구는 기녀들의 머리채를 더욱 크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머리장신구들은 상류계층 못지않은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크고 화려한 머리채는 가녀린 목선의 뒤편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여성미의 극치를 이루게 하였다.

37) 조기여 · 이화순 · 정연(2001) 「일본 에도시대 여성의 결발양식과 머리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 학회지』 2권 1호, p.282

38) 조기여 · 이화순 · 정연(2001), 위의 논문, p.285

4. 결과 및 고찰

4.1 의복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의복 형태를 비교, 고찰한 것을 <표 1>에서 정리해 보았다.

<표 1>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의복 형태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의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된 저고리, 풍성한 치마로 이루어진 향아리형 실루엣 · 속옷을 겹겹이 착용 · 거들치마로 치마끈이 생김 · 가는 상체와 풍성한 하체, 속옷노출로 인한 관능미 · 은은한 배색의 의복에 원색의 노리개를 사용하여 시선을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데 라인이 좁아지고 길어짐 · 길고 가녀린 일자형 실루엣 · 차분한 색상과 화려한 색상을 중첩한 세련된 색채대비 · 실용적인 오비가 넓고 길어지며 위치도 가슴선 아래로 올라감 · 고소데와 오비를 고정하는 시고키 · 깃을 뒤로 젖혀서 목의 뒤태를 노출시켜 관능미 연출
비교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한 중인층의 성장은 사치와 유희 문화 발달의 원동력 · 유희문화 발전과 신분제 붕괴는 기녀 계층의 확산의 계기 마련 · 남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욱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후상박 의복형태 · 풍속화의 보급과 사대부 남성들의 처첩 예계의 권유로 기녀의복 유행되어짐 · 커다란 머리채와 가는 목선, 가녀린 상체와 풍성한 하체가 대비되어 관능적인 여성미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한 초년이 나타나면서 유곽의 유희문화를 발달시키고 전파하게 됨 · 하류층에 속하나 상류사회에 예술을 전달하는 예술인으로 인정받음 · 유리연극을 토대로 발달한 우키요에의 미인도는 패션잡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기녀의복 형태가 유행 · 부풀린 머리형태와 일자형 실루엣은 상·하체의 비율과 함께 가녀린 여성미 극대화

4.2 화장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화장을 비교, 고찰한 것으로 <표 2>에서 정리해 보았다.

<표 2>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화장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화장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대화장 · 윤기있고 풍성한 검은머리 · 먹으로 그린 반달 형태의 눈썹 · 복숭아빛 뺨 · 붉은 입술의 연지화장 · 하얀 피부 표현을 위한 백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으로 그린 다양한 눈썹표현 · 붉은 입술, 이색(異色)입술 등 다양한 연지 사용 · 치아를 검게 하는 치흑 · 하얀 피부 표현을 위한 납백분 사용
비교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시대 국책으로 분대화장 장려 · 일반여성은 자연스러운 화장, 기녀는 남성인 선호했던 분대화장 · 천민이지만 사대부를 접대하였으므로 값비싼 백분과 연지 사용 · 납중독으로 더욱 짙은 화장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계층이었으나 고가의 화장품 사용 · 에도에서는 요시하라의 유녀만이 치아를 검게 물들임 · 검은 입술, 치흑은 검은색을 선호하는 일본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3 머리형태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 머리형태를 비교, 고찰한 것으로 <표 3>에서 정리해 보았다.

<표 3>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 머리형태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머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은머리로 타래머리 라고도 함 · 위로 솟은 형태, 비대칭 형태, 앞뒤로 풍성한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연출 · 말엽에는 쪽머리 유형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고형, 시마다형, 가쓰야마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분발형식의 앞머리, 빈, 타보, 상투의 형태와 높이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구분
비교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게 부풀려진 검은 머리채는 가늘고 하얀 목선과 대비되어 가녀린 여성미 나타냄 · 신분적 특성을 이용해 많은 가채사용 · 문헌상으로는 화려한 머리장신구를 사용했다고 해도 풍속화에는 표현되지 않는 것은 당대 회풍 때문이라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장신구를 사용하여 크게 부풀린 머리채는 짙혀 입어 노출된 목선의 뒤태와 대조를 이루어 관능미 표현 · 효고형, 가쓰야마형은 기녀머리형태가 명칭으로 남아 당시 기녀의 영향력을 알 수 있음 · 하류계층이지만 상류계층 못지않은 머리형태와 장신구를 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여, 대중의 모방심리를 이끌어냄

4.4 머리장신구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머리 장신구를 비교, 고찰한 것을 <표 4>에서 정리해보았다.

<표 4>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머리 장신구 비교

	조선후기	에도시대
풍속화		
장신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이 보이도록 쓰개 착용 • 머리장신구를 마음껏 패용 • 풍속화에서 머리장신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 화풍의 영향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상투를 고정시키는 고우가이 • 다양한 재료의 구시를 2-3개 착용 • 간자시를 대칭형으로 여러개 꽂음
비교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민신분이지만 값비싼 머리장신구를 사용함으로 사대부 여성과 같은 부의 과시 •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쓰개는 외적인 미와 성적인 매력을 위해 얼굴이 보이도록 사용했으며, 머리장신구를 마음껏 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계층이지만 상류계층 못지않은 화려한 장신구 사용 • 실용적이었던 머리장신구는 값비싼 재료와 다양한 장식을 사용해 사치스러워짐 • 풍속화에는 머리장신구 외의 장신구가 거의 없는데 이는 한 폭의 그림같은 고소대의 특징 때문인 듯 함

5. 결론

근세풍속화에 나타난 한·일기녀의 복식 형태의 변화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일간 기녀의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조선시대는 사치현상과 유흥문화 발전으로 기녀계층의 확산을 만들었고, 기녀들은 남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앞다투어 더욱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기녀는 좁고 짧아진 저고리와 길고 풍성한 치마로 하후상박의 굴곡적인 실루엣을 완성시켰다. 에도시대 역시 부를 가진 초년계층이 주권을 잡음으로서 사치와 유흥문화가 발달했지만, 조선시대 기녀와 달리 에도시대 기녀는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존재였다. 이들은 고소대를 중첩하고 넓고 긴 오비를 가슴아래에 고정시켜 길고 가느다란 일자형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유사점은 양국 모두 하체를 길게 표현한 것인데, 조선시대는 저고리가 짧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마가 길어졌으며 에도시대는 오비를 이전과 달리 가슴아래로 높이 여며 입어 나타내었다. 또한, ‘거들치마’의 치마끈과 ‘시고키’라는 허리끈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 조선시대 기녀와 달리 에도시대 기녀는 고소대를 중첩하여 세련된 배색대비,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한 의복자체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이는 은은한 색상에 원색의 노리개를 패용하여 가슴과 허리부근으로 시선을 모으는 조선시대 기녀의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남성의 관심을 얻기 위해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표현했던 양국의 기녀들은 그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시대 기녀는 가녀린 상체 아래로 풍성한 둔부를 강조하고 속옷을 노출시켜 여체를 드러냄으로써 관능미를 드러내었으나, 에도시대 기녀는 고소대의 깃을 뒤로 젖혀서 가늘고 하얀 목선의 뒤편을 노출시켜 가녀린 여성미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2) 한·일간 기녀화장에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하얀피부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노동을 하지 않는 계층이라는 과시와 하얀피부를 선호하는 남성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양국의 기녀는 남성분이 포함된 백분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검푸르게 변했다고 한다. 차이점으로 조선시대는 ‘분대화장’이라는 기녀만의 화장이 있어 먹으로 그린 반달 형태의 눈썹, 복숭아 빛 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의 연지화장으로 판에 박힌 화장을 했다. 반면 에도시대는 다양한 눈썹 형태와 두 가지 색상의 입술화장, 치후과 같은 일본만의 특징적인 화장법이 나타났다. 특히, 검은 입술과 치후은 검은색을 선호하는 일본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한 화장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였을 것이다.

3) 한·일간 기녀 머리형태에 살펴보면,

조선시대 기녀는 값비싼 가체를 이용하여 엷은머리라는 한 가지 양식을 기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하였던 반면, 에도시대 기녀는 조선시대에 비해 상당히 다양하다. 특히, 당시 기녀의 머리형태가 명칭으로 전해진 것은 기녀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유사점으로는 머리형태를 크게 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기녀는 가채를 이용해 부풀린 머리채를 가늘고 하얀 목선과 가는 상체, 풍만한 하체와 함께 굴곡적인 관능미의 극대화에 이용하였다. 에도시대의 기녀는 다양한 머리장신구로 크게 부풀린 머리형태에 고소대의 깃을 뒤로 젖혀 착용하였다. 이로 인해 목선이 드러난 가녀린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하류계층이지만 상류계층 못지않은 머리형태와 값비싼 머리장신구를 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여 모방심리를 이끌어 내었다.

4) 한·일간 기녀머리장신구에 나타난 차이점은 조선시대는 기녀만 사용한 쓰개로 전모, 가리마가 있으며, 얼굴을 드러내어 착용하였다. 즉,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에도시대 기녀는 쓰개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유사점으로 양국의 기녀는 머리장신구를 마음껏 패용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녀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풍속화에서는 머리장신구를 자세히 표현한 그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테일한 에도시대 풍속화와는 달리 여백의 미와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화풍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에도시대 기녀는 다양한 머리형태만큼 머리장신구 역시 다양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상투에 양끝이 화려하게 장식된 고우가이와 다양한 형태의 구시를 2-3개 꽂고, 대칭형으로 여러 개의 간자시를 꽂아 머리형태를 크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기녀는 비슷한 시대적 배경에 놓여있었지만, 천민계급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했던 조선시대 기녀와 하류계층이지만 상류계층에 예술을 전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에도시대 기녀는 관능미의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조선시대 기녀는 유교적 관념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던 여체의 굴곡과 노출을 통해서 남성을 유혹한 반면, 에도시대 기녀는 목선을 노출시켜 여성의 목선을 드러냄으로서 가녀린 여성미를 극대화 시킨 것이다. 또한 한·일간 복식문화 양상은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문양과 색채대비, 화장 등의 디테일 한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풍속화를 살펴본바 조선시대 풍속화는 은은한 지문이나 머리장신구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은 반면, 에도시대 우키요에는 기녀의복의 문양과 치아까지 그럴만큼 디테일하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화풍뿐만 아니라 머리 형태 및 색채 등의 명칭과 종류도 조선과는 달리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Iwao Nagasaki(2006) 『Kosode The Origin of Modern Kimono Design』Pie books, pp.42-43
 久下司(1996) 『化粧』法政大學出版局, p.67
 北村哲郎(1988) 『染織シリーズ4-日本服飾小辭典』源流社, p.47
 鈴木昌子(2001) 「江戸時代の髪形-髪形の變遷にみられる日本人の美意識-」『山野研究紀要』, p.11
 稿本澄子(1985) 『女は髪のためだからむこう, 日本美術に描かれた女性たち』朝日出版社編, p.65
 長崎 巖(1993) 『日本の染織』4, 東京書院, p.86
 _____(2006) 『小袖』pie book, p.44, p.74
 丸山 伸彦(2007) 『江戸のきものと衣生活』, p.23
 村田孝子(2009) 『江戸300年の女性美化-化粧と髪型-』青幻社
 四日市市立博物館 編(2002), 『MOA美術館所藏 浮世繪版畫名品展』, p.32, p.34
 강명관(2010) 『조선 풍속사 3』푸른역사, p.78, p.215
 고바야시 다다시(2004) 『우키요에의 美』이다미디어, p.178, p.275, p.282
 고현정(1999)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p.20
 김미라(2000) 「조선후기 풍속화와 일본 에도시대 우키요에 비교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3-14
 김인경(1995) 「혜원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복식』25권, p.9
 김지연 · 황승민(2010) 「일본여성의 두발장식 및 장신구에 관한 연구」『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11권 3호, p.103
 박보영(2005) 「일본여성의 색조화장에 반영된 미의식 연구」『한국인체예술학회지』6권 3호, p.133
 北村哲郎 著 · 이자연 역(1999) 『일본복식사』경춘사, p.118, p.157
 서주희, EBS화인 제작팀(2011), 『풍속화』지식채널, p.161, p.209
 양지나(2010) 「에도시대 우키요에 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p.58
 윤혜성(2009) 「한국과 일본 기본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17-19C 여자복식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p.60
 이기백(1967) 『한국사신론』일조각, p.265
 이유진(2004) 「신윤복과 우타마로와의 여인 인물 표현 비교연구」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p.22
 이행화 · 박옥련(2010)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일본근대학연구』제29집, p.300, p.303, p.304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한길아트, p.268, p.337, p.347, p.406, p.408
 조규화(1998) 『복식미학』세운문화사, p.28
 조기여 · 이화순 · 정연(2001) 「일본 에도시대 여성의 결발양식과 머리장식에 관한 연구」한국인체예술학회지 2권 1호, p.282, p.185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 要 旨 〉

근세 한·일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 형태 비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와 에도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복식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복의 경우 조선시대 기녀는 은은한 색채와 원색의 노리개를 사용하였다. 반면 에도시대 기녀는 다양한 색상의 고소대를 겹쳐 입어 색상의 대비, 다양한 지수와 문양으로 장식하여, 의복자체가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또한 조선시대 기녀는 항아리형 실루엣과 속옷을 노출시켜 은근히 여체를 드러내었으나, 에도시대 기녀는 목선을 노출시켜 관능미를 나타냈다.

화장은 양국 모두 하얀피부를 선호했다. 조선시대는 ‘분대화장’이라는 기녀만의 화장이 있었다. 반면 에도시대는 다양한 눈썹 형태와 두 가지 색상의 입술화장, 치후과 같은 일본만의 특징적인 화장법이 나타났다. 머리형태의 차이점은 조선시대 기녀는 없은머리라는 한 가지 양식이 나타난다. 에도시대는 기녀가 했던 머리형태가 명칭으로 전해질 정도로 기녀의 영향력은 크고 다양했다.

양국의 머리형태는 공통적으로 머리를 크게 했다. 이는 값비싼 가채와 다양한 머리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장신구는 조선시대 기녀만 사용한 쓰개는 전모, 가리마로 얼굴을 드러내어 착용하였다. 또한,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었다.

에도시대 기녀는 양끝이 화려하게 장식된 코우가이, 다양한 형태의 구시를 2-3개 꿇고, 대칭형으로 여러 개의 간자시를 꿇아 머리형태와 함께 크게 강조된 머리 장식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Shape of Ginyeo Clothing in the Early Modern Genre painting, Korea to Japan

This study compared the costume of “ginyeo” (also spelled “gisaeng”, Korean females entertaining nobilities in the past) during Late Joseon Period in Korea and Edo Period in Japan.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ing. The “ginyeos” during Late Joseon Period wore costume in subdued colors but favored “norigae” (traditional ornaments worn by women) in primary colors. On the other hand, the “ginyeos” during Edo Period emphasized the contrast of colors by wearing multiple “gosodes” (traditional Japanese costume for women). The costume of Japanese “ginyeos” looked like a canvas of painting by having variety of embroideries and patterns.

In addition, the “ginyeos” during Late Joseon Period exposed female body in delicate manner by showing underwear and jar-like silhouette; while the “ginyeos” during Edo Period emphasized voluptuous beauty by exposing neckline.

Regarding makeup, “ginyeos” in both countries favored white skin. During Late Joseon Period, there was unique makeup of “ginyeo”, which was called “bundae-hwajang”. On the other hand, Japanese “ginyeo” had their own unique make-up such as black tooth, two-color make-up for lips and diverse eyebrow shapes.

Regarding hairstyle, “ginyeos” in Late Joseon Period had uniform style which is called “unjeun-meori”. Meanwhile, “ginyeos” in Edo Period had various hairstyles. At the time, the influence of “ginyeo” in Japan was quite big and various that the name of each hairstyle is succeeded till today as unique name.

In addition, “ginyeos” in both countries favored large hairstyle. It is believed that they want to demonstrate their wealth by using expensive “gache” (traditional wig for female) and assortment of hair ornaments.

Regarding ornaments, “ginyeos” during Late Joseon Period used “jeonmo” (traditional sunshade cap made of bamboo) and “garima” (a large black cloth covering head but exposing face). They also used hair ornaments decorated with jewelry.

Meanwhile, “ginyeos” during Edo Period used “kougai”, of which both ends are luxuriously decorated, and two or three “gasis” in various shapes on their hair. Then they added few “ganjasis” in symmetry. The characteristic of Edo Period “ginyeos” in hair is that they emphasized hair ornaments together with hairstyle.